

**MBC** + 권석원 · MBC 제작기술국 라디오기술부

# 라디오 신형 이동스튜디오 '알라딘'

몇 년에 걸쳐 어렵게 제작된 알라딘.

처음 시작부터 2009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알라딘 탄생

2005년 라디오 본부는 투명한 느낌의 중계차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오랜 기간 라디오 PD와 엔지니어들은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조금씩 신형 이동스튜디오 중계차에 대한 윤곽을 잡아갔다.

처음에는 완전 투명한 누드 중계차를 구상하였으나,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과의 문제 등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 현재의 형태(알라딘)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 청취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알라딘이 탄생했다.

알라딘이 탄생하기 전에는 작은 야외 공개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대부터 조명, 음향 등 각종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알라딘 하나로 해결되고 있다.

## 알라딘 콘셉트

알라딘은 유리 공간처럼 투명한 느낌과 유리를 열었을 때 오픈된 느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콘셉트에서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PA, 무대, 조명 없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방송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크게 이동스튜디오, 간이 콘서트가 가능한 무대 그리고, 이동하는 라디오 홍보판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로 제작됐다.

■ 알라딘은 이동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 넓은 스튜디오 창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누드 중계차에서 시작하여 현실적인 도로교통법과 타협을 본 것이 현재 알라딘의 넓은 스튜디오 창이다.



▣ 알라딘은 간이 콘서트가 가능한 무대로 변형이 가능하다. 스튜디오 쪽 한쪽 벽면을 오픈하여 간이 라이브 무대로 변형이 가능하고, 자체 PA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사할 수 있다.



▣ 알라딘은 움직이는 라디오 이동 홍보판으로 이용된다. 차량 외부 디자인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차량 자체가 화제를 불러와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알라딘 제원

제원	알라딘
차 종	현대 트라고 9.5톤 장축 트럭
총 길이	10,385mm(트럭 캐빈 : 2,650)
실제 길이	7,650mm
폭	2,495mm
높이	3,940mm(안테나 높이 포함)
스튜디오 길이	4,000×2,495(mm)
컨트롤 룸 길이	3,600×2,495(mm)
비고	 골조 방식을 채택하여 각 모서리 부분이 갈끔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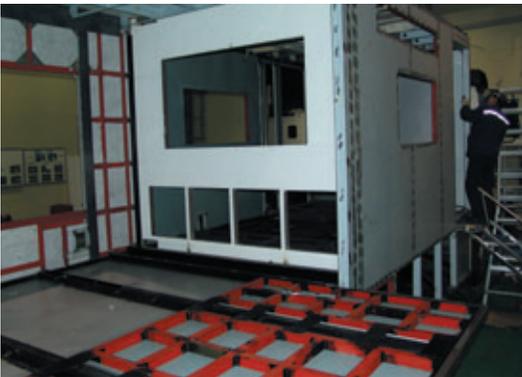
권석원 · MBC 제작기술국 라디오기술부  
+ 라디오 신형 이동스튜디오 '알라딘'

알라딘 제작 과정

▶ 9.5톤 저상 장축트럭 입고, 트럭 위에 프레임 보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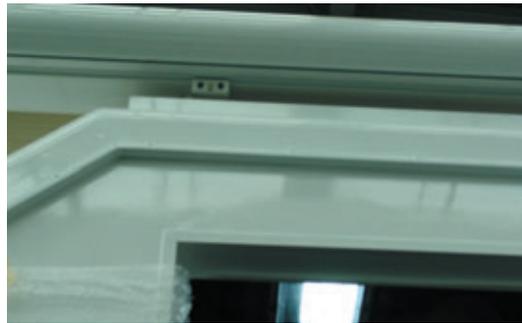


▶ 프레임 위에 골조 방식으로 전체적인 외형 제작



원래 제작 규격서에는 외벽 방식이 폴리우레탄 폼이고, 외판은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제작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관의 매끈함을 위해 골조 방식으로 변경했다.

외벽 방식	장점	단점	비고
폴리우레탄 폼	- 가볍다	- 문을 모양 등에서 외관 상 보기가 좋지 않음	- 외판 : 알루미늄 합금강
골조 방식	- 격자 형식으로 짜서 제작하므로 틀이 필요없어서 외관이 보기 좋음	- 무게가 무거워짐(외판 무게의 30% 증가) - 비용 증가	- 외판 : 스틸 (갈바늄-전기 아연 도금)



[폴리우레탄 폼 방식]



[골조 방식]

▶ 내부 케이블 작업, 외바디 장착 및 인테리어 작업



## Contents

권석원 · MBC 제작기술국 라디오기술부  
+ 라디오 신형 이동스튜디오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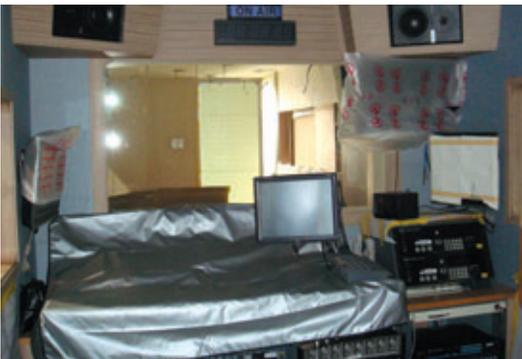
### ▶ 도색 및 1차 검수



### ▶ 외벽 랩핑 작업 완료



### ▶ 장비 설치 및 인테리어 마감 작업



### 알라딘 특징

- ① 벽면의 윈도우가 오픈되어 무대로 변형이 가능하다.
- ② 장착된 LED 조명을 이용하여 별도의 조명 없이도 미니 공개방송을 할 수 있다.



- ③ 차량 자체에 장착된 스피커와 별도의 외부 스피커를 이용하여 현장 PA가 가능하다.
- ④ 벽면에 장착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문자를 구현할 수 있다.



[루프 스피커 및 전광판]

- ⑤ 스튜디오 테이블의 이동으로 넓은 무대로 변형 가능하다.
- ⑥ 이동스튜디오를 위한 넓은 Sunshade 텐트를 장착했다.



- ⑦ 내부 전체 조명을 LED로 구현하여 전력 소모를 줄였다.



- ⑧ 디지털 AMU를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 알라딘 활약상

2009년 4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강석, 김혜영의 싱글빙글쇼',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 '지상렬, 노사연의 두시만세', '현영의 뮤직파티', '윤건의 꿈꾸는 라디오', '김기덕의 골든디스크', '이주연의 영화음악' 등 수많은 프로그램의 녹음 및 생방송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현영의 뮤직파티는 '어디든 GoGo씹~'이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청취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계신 청취자들은 직접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고, 미니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하는 분들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며 함께 느낄 수 있어 알라딘의 인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음의 웹 주소(<http://www.imbc.com/broad/radio/aladdin/index.html>)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알라딘으로 방송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다.



### 알라딘의 현장 반응

현장에서의 알라딘의 인기는 기대 이상이다. 현장에서 생방송이 진행되는 알라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찍힌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요즘은 알라딘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청취자들이 모여 PA의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하지만,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야외방송을 알라딘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취자들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관심과 응원으로 청취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기게 된다면, 그것이 MBC 라디오의 힘이 될 것이고, 현장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자부심과 보람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한다.



[뮤직파티, 이화여대]



[별이 빛나는 밤에, 영월]



[상골명글쑈, 경기도청]



[이주연의 영화음악, 제천]



[뮤직파티, 부천]



[여성시대, 전주]

### 알라딘 이용

앞으로 알라딘은 여건이 되는 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녹음과 생방송에 적극 활용될 것이며, 프로그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MBC 내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협의 후 적극 참여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작부터 운영까지 많은 스태프들의 노력과 정성이 녹아있는 알라딘. MBC 라디오하면 알라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빌 것이다.